

# 총당금 축소·비이자 확대… 순익 2.5조 방어

## NH농협금융

작년 순이익 전년 대비 2.3% 상승  
이자이익 줄고, NIM 1.67%로 하락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46% 급감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의 지난해 실적은 '이자 중심'에서 '총당금·비이자 방어'로 요약된다. 2025년 지배주주 순이익이 2조5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늘었다. 그렇지만 실적의 성격은 선명하게 바뀌었다. 이자이익이 줄고 은행 순이자마진(NIM)이 1.67%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급감과 비이자 확대가 순익을 떠받쳤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은 2025년 영업이익 4조896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6% 성장했지만, 이자이익은 8조4112억원으로 1.0% 줄었다. 금리 하락 국면에서 이자 기반 수익이 둔화한 대신, 신용비용 축소와 비이자 확대가 순익을 방어한 구조다.

은행 본업의 마진 압력은 뚜렷했다. NH농협은행의 NIM(카드 포함)은 2024년 말 1.88%에서 2025년 1.67%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환경에서 NH농협은행 순이익은 1조814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순익 방어의 핵심은 신용비용 감소다. 2025년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6572억원으로 전년 대비 46.3% 급감했다. 특히 NH농협은행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3644억원으로 62.4%나 감소해 그룹 실적 방어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신용비용 축소의 '지속성'은 점검 대상이다. 그룹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0.68%에서 0.63%로 개선됐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77.91%에서 165.98%로 하락했다. NH농협은행 적립비율도 같은 기간 214.51%에서 190.91%로 내려갔다. 건전성 지표 개선에도 총당금 커버리지가 낮아진 만큼, 2026년 신용비용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이자이익 확대가 실적 방어에 힘을 보탰다. 2025년 비이자이익은 2조2740억원으로 26.4% 늘었고, 수수료이익(2조727억원)과 유가증권·외환파생 관련 손익(1조5563억원)이 각각 15.2%, 25.7% 증가했다. NH농협금융은 비이자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을 강조했지만, 시장 변수에 따라 해당 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남는다.

연간 기준으로는 '방어'에 성공했지만, 4분기 흐름은 흔들렸다. NH농협금융의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2513억원으로 3분기(6312억원) 대비 60.2%

급감했다. 같은 기간 기타영업외이익은 62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악화했고, 비이자이익도 5471억원에서 3973억원으로 줄었다. 연간 실적을 지탱한 비이자·비경상 손익의 분기 변동성이 확인된 셈이다.

비은행 계열사 성적은 엇갈렸다. 지분 반영 후 순이익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이 6079억원을 기록했고, NH농협생명(2155억원)과 NH농협손보(824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NH저축은행은 -41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2025년 그룹 이익 기여도는 은행 64.5%, 비은행 35.5%로 전년보다 비은행 비중이 커졌지만, 저축은행 등 취약 부문의 정상화 과제도 함께 부각됐다.

NH농협금융은 "NH농협금융만의 특화된 생산자·포용금융 체계의 본격 가동으로 국내 경제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룹 포트폴리오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신한은행 방카슈랑스 가입고객 '목표완주' 이벤트 진행

신한은행은 오는 4월 17일까지 방카슈랑스상품을 '신한 SOL뱅크'에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목표완주! 새해 돈 모으기 결심했다면, 황금빛 인생 프로젝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금융 서비스로, 고객은 은행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솔(SOL)뱅크'에서 보험상품 검색부터 가입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를 통해 저축성 또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월 보험료 10만원 납입 또는 일시납 보험료 1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300명을 추첨해 'BBQ 황금올리브치킨 + 콜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경품은 5월 20일까지 가입을 유지한 고객에 한해 지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새해 재무 계획을 세운 고객들이 '신한 SOL뱅크'에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모바일·인터넷을 비롯한 비대면 보험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지난해 항공교통량 사상 최초 100만대 넘었다

국토부, 항공교통량 전년비 6.8% ↑  
국제선 9.4% ↑ 일평균 2778대 운항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대를 넘어섰다. 국제선 운항이 늘어나며 해외노선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교통량이 전년보다 6.8% 증가한 101만여대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운항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84만여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이 이끌었다. 국제선 운항은 하루 평균 2160대로 전년보다 9.4% 늘었다. 특히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뉴시스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중·단거리 해외노선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도 전년보다 21% 늘어 동북아 항공 허브로서의 위상도 한층 강화됐다.

반면 국내선은 하루 평균 617대로 1.6% 감소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국내선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하루 평균 1193대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제주공항은 487대로 0.4% 감소했고 김포공항은 390대로 0.2% 줄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글로벌 항공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장을 하는 흐름 속에서 항공교통의 안정적 증가는 물류·관광·수출입 등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공교통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서울집값 0.91% 상승 두달연속 상승폭 확대

서울 집값이 두 달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한강벨트 아파트가 가격이 뛰면서 전국 집값을 끌어올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28% 상승했다. 전월(0.26%)에 이어 상승폭이 확대되며 10·15 대책이 나온 작년 10월(0.29%) 수준으로 돌아갔다.

서울은 0.91%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1%포인트(p) 커졌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56%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1.45%), 성동구(1.37%), 강동구(1.35%), 용산구(1.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0.36%)는 용인 수지·성남 분당·안양 동안구 위주로 상승한 반면 평택시 및 고양 일산서구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단지 위주로 실수요 중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매매는 외곽 소재 구축 단지 및 일부 입주 물량 과다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 위주로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지방)은 0.06% 올랐지만 상승률은 전월 대비 축소됐다.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이 4억2960만원, 서울이 9억8147만원이다. 중위 가격으로 보면 전국 2억7181만원, 서울 7억3958만원으로 조사됐다.

/안상미 기자

## KB금융, 1조 규모 국민성장인프라펀드 결성

150조 국가전략 인프라사업 지원  
KB국민은행·손보·라이프생명 출자

KB금융그룹은 1조원 규모의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정부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추진계획에 맞춰 국가 전략 인프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조성됐다.

KB금융은 이번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에 그룹의 자본력과 전문적인 장기 투자·운용 역량을 집약시켰다.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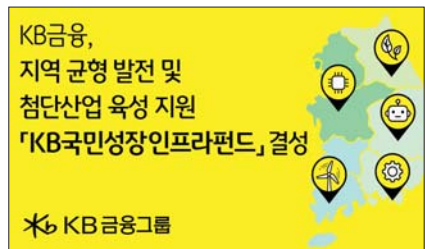
명 등 주요 계열사가 출자자로 참여해 1조원 전액을 100% 그룹 자본으로 조달한다. 펀드 운용은 국내 1호 토종 상장 인프라펀드인 '발해인프라펀드'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KB자산운용이 맡는다.

펀드는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 등에서 지난해 8월 회계기준을 명확화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구조를 채택했다.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구조를 통해 관련 평가손익의 당기 손익 반영 부담을 낮춰 대규모 펀드의 장기 투자에 따른 손익 변동성을 완화했다. 향후 민간자금이 국가 기간산업에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흐름을 여는

모범적인 투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지역균형성장 SOC(교통·환경·사회적 인프라, MICE 산업 등) ▲디지털 인프라(AI 데이터 센터, AI 컴퓨팅센터 등) ▲에너지 인프라(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태양광·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등 국내 인프라 개발·건설·운영 사업이다.

특히 이번 펀드는 국민성장펀드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을 주요 투자 자산으로 편입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투자 계획 수립에 KB금융의 입증된 인프라 투자·운용 경험을 더해 단순 투자 규모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독보적인 인프라투자 노하우와 주요 계열사가 시장에서 증명해 온 투자·운용 역량을 결집해 1조원 규모의 단일 펀드를 장기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